



“나는 지구를 지킨다”

	덕암중학교	<p>“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덕암중학교”</p> <h1>가정통신문</h1>	학교전화 안내 ▷교장실 070-4919-5210 ▷행정실 070-4919-5211(544-2201) ▷1학년교무실 070-4919-5236,5223,5225 ▷2학년교무실 070-4919-5240,5205,5237 ▷3학년교무실 070-4919-5234,5232,5233
	제2025-22호		

202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문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질병예방이나 치료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 이상으로 심리정서 발달의 의미와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기는 개인의 고유한 인격특성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신의 삶을 보다 잘 이끌어가고 타인과 공동체 집단, 환경과의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 자질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합니다. 본 검사를 통해 자녀의 성격특성과 아동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정서·행동의 발달정도를 평가하고, 개별 성격 특성을 양육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적절한 평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이 응답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응답결과는 자녀의 성격특성과 현재 정서·행동 측면에서 연령에 적합한 발달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고, 검사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에 남기지 않습니다. 검사결과는 추후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오니, 성격특성검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장점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의 기회를 가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학생의 정신건강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검사 및 지원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내용>

구분	담당	추진 내용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학교	* 대상: 초등학교 1·4학년 전체 학부모, 보호자 * 도구: 아동 정서·행동특성검사지(CPSQ-II-I) * 검사결과 분석 후 성격 특성 및 전문기관 심층평가가 필요한 학생 파악
심층평가	전문기관	*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상담 및 검사
추후관리 (개별상담)	학교 및 가정, 전문기관	* 관심군: 학교 내 지속관리 및 전문기관에 의뢰·치료지원 ※ 정서·행동발달특성과 관련한 개별상담 및 치료 지원

★ 관련 사항 문의처: 덕암중학교 상담실 (전화 070-4919-5229)

2025. 3. 31.

덕 암 중 학 교 장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이해자료

사업의 목적

- 학생의 긍정적 성격특성 파악 및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
- 학교의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 학교-지역사회 및 관계부처 공조체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 발달지원의 효율성 제고
- 학생 정서·행동특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예방·관리

중요성 및 필요성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의료 및 보건 영역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생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202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 39.9%, 남학생 30.8%, 여학생 44.2%,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26.0%, 남학생 21.4%, 여학생 30.9%, 자살 생각률은 전체 13.5%, 남학생 9.8%, 여학생 17.4%, 자살 계획률은 전체 5.3%, 남학생 4.0%, 여학생 6.6%, 자살 시도율은 전체 3.2%, 남학생 2.5%, 여학생 3.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학업, 또래 집단에서의 따돌림, 적응장애, 문제행동, 학생들 간의 폭력, 자살 등과 같은 어려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뇌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자 성격특성이 확립되는 성인의 전 단계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때 발생하는 정서·행동문제는 청소년 이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악화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필요성 또한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성격특성검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학생의 긍정적 성격특성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격특성검사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성격특성 수준을 제시하기보다 각 학생이 자신의 강점과 성격특성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얻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기 계발에 도움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관심군 선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신뢰도 문항을 보완하고 관심군 선별기준을 강화하여 선별의 적정선을 향상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체계적인 정신건강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 사업의 시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